



훌륭한 科學者 계속 確保해야

—호닉博士 · KIST 當面課題 지적—

崔亨燮科技處장관의 招請으로 來韓한 호닉 (Donald, F. Horig) 박사내외는 8日間의 滯韓日程을 마치고 6日 下午 離韓했다

韓國科學技術研究所(KIST)의 創設에 크게 공헌한 바 있는 호닉박사는 지난 65년에 이어 두번째로 來韓했던 것인데 1차來韓 때는 遜前美國大統領의 科學顧問으로 있으면서 KIST 설립의 타당성 調査를 위해 美國大統領의 特使로 來韓했다.

이번 滯韓期間에 KIST, 울산공업단지, 포항제철공업주식회사 등을 둘러본 호닉 박사는 “연구소가 이룩한 구체적인 업적으론 국기기술의 도입, 소좌와 더불어 기술경제분석을 통해 공업화의 진로를 잡아 준 것”이라고 시찰소감을 밝힌 다음 「기술개발



〈호닉 博士〉

에 있어서는 전자화학, 식품공업에서 이룩한 진보가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당면 문제로는 “훌륭한 과학자를 계속 확보하는 것과 産業界와의 긴밀한 관계 및 對話”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대부분의 나라가 공통적으로 맞고 있는 과제라고 했다.

現在 美 브라운大總長으로 있는 호닉博士는 68년에 KIST 設立등에 기여한 功績으로 우리나라의 國民勳章 牧丹章을 수여받은 바 있는데 美 하버드大 化學科에서 받은 理學博士學位를 비롯 12個大學에서 名譽博士學位를 받았다.

本軌道에 오른 科學館 展示 활동

開館 一周年 맞아 工作教室도 새로 마련

國民들에게 科學技術의 知識을 効果적으로 보급시키고 과학 기술의 理解와 關心을 부각시켜 生活의 科學化를 촉진코저 常設 展示館을 설치하고 있는 國立科學館(관장 金知恩)이 9월 8일 開館一周年을 맞는다.

總 3,150坪의 데지에 地下 1層, 地上 5層의 本館이 들어서 있는 國立科學館(중로구 와룡동 2)은 전기전자, 우주 항공, 물성(物性) 에너지, 기계, 화학, 기상, 지질광업, 해양, 곤충, 동물, 人體 등 12個分野에 걸쳐 모두 2백 23점의 전시품을 갖추고 있다. 이 시설들은 거의 관람자들이 직접 손으로 다룰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1백 14편의 科學映畫와 3백 60석의 客席을 준비하고 있는 映示館에서는 하루 4번씩(상오 11시, 하오 1·3·4시) 上映하고 있다.

또한 常設원과 과학관 사이에 “科學의 門”을 개설하여 常設원에서는 살아있는 動物 및 植物을 觀覽할 수 있고 과학관에서는 과학의 새원리 및 현대과학기술을 觀覽할 수 있도록 日日科學教室制度를 創設 운영하여 왔으며 이번 9월 새학기부터는 工作教室를 새로 마련,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開放할 計劃

이다.

現在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이 공작교실은 한번에 50명 안팎의(연간 2만명)의 學生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공작에 필요한 일체의 展覽과 기술지도를 과학관 당국이 제공한다.

즉 「라디오」의 組立을 비롯한 전기전자 및 통신분야의 공작과 비행기나 배의 모형등의 組立, 生物이나 鑛物 표본의 현미경 觀覽, 學生들이 採集한 昆蟲의 標本 만들기등의 實習이 科學관에 의해 指導된다.

이밖에 科學館의 主要事業으로 備을 수 없는 것으로 科學展覽會가 있다.

科學技術處 主催로 매년 一回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科學展覽會가 금년도에는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本館에서 열릴 計劃이다.

여기에는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분야에서 創意性이 있고 學術的 가치가 있는 作品, 세마을 사업에 직결되어 놓여진 重要 功績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작품등 주로 과학기술의 敎育과 보급에 자료가 될 수 있는 150점 정도의 작품을 전시할 計劃이다.